

# 서귀포해양경찰서

곰박한 제주바다 지킴이

3월

뉴스레터

해양주권

01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해양치안

02 실뱀장어 불법포획 특별단속

03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안전환경

04 주말 잇따른 익수자 사고에 구슬땀

05 모슬포 인근 해상  
좌초선박 전원 구조



06 풍랑주의보 발효 중 도서지역  
응급환자 잇따라 이송

내부역량

07 제241기 신임경찰관(25명)  
관서실습교육



서귀포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바다가족 현장소통위원회

## 해양주권 분과

### 01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불법조업어선 정선명령



불법조업어선 등선 검문검색



-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도기범)은 14일 오후 3시 13경 서귀포 남쪽 113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소감어호(200톤급, 유망, 해도 선적, 승선원 9명) 등 2척을 발견
- 이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해상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선박내 어창에서 어구와 어획물을 정밀 검색하고 무허가 조업 혐의로 해당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 이후에도 서귀포 남방 87km 인근 해상에서 허가제한 조건위반으로 나포하는 등 3월에만 총 5척을 나포하였다.
- 앞으로도 서귀포해경은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외국어선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법 중국어선 검문검색 태세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문의** 서귀포해양경찰서 외사계 (064-793-2568)

## 해양치안 분과

02

### 실뱀장어 불법포획 특별단속 실시

현수막 게시 홍보



단속 예고 및 대국민홍보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실뱀장어 포획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에서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서귀포해경은 실뱀장어 포획철 도래에 따른 관련 신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에 앞서 관할해역 실뱀장어 어업인 등을 상대로 단속 예고 및 관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게시와 대민 홍보를 통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서귀포해경은 파출소 요원들을 동원하여 해당 어촌계 등의 협조를 받아 순찰강화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 이번 특별단속 중점사항은 ▲영업구역 위반, 구멍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기본안전 위반사항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결락 등 세부적인 안전 위반사항까지 포함된다.
- 특히, 기상특보로 출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몰래 출항하거나 편법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한다.
- 한편, 지난 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선장의 자격기준 상향 ▲영업 중 선장·선원의 낚시행위 금지 ▲야간(20시~새벽04시) 시간대 13명이상 승선하여 2해리 밖으로 출항 할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올해 2월 1일부터는 야간영업 시 등(燈)이 달린 구멍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며,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멍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 · 환경분과

04

주말 잇따른 익수자 사고에 구슬땀 모두 구조

성산항 익수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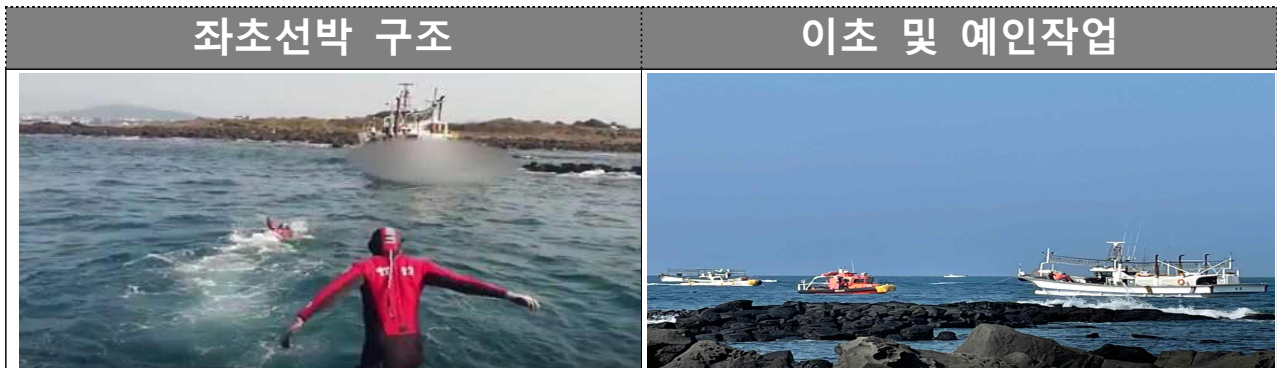


갯바위 익수자 구조



- 7일 오후 성산항 어판장 앞에서 익수자 2명과 송악산 인근 갯바위 주변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구조했다
- 익수자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성산항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기관실 점검 종료 후 옆에 계류된 다른 선박으로 이동 중 해상 추락함에 따라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서귀포해경에 신고하였다.
- 신고 접수한 서귀포해경 성산파출소에서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도착한 구조대원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레스큐 튜브와 로프를 이용하여 익수자 2명을 구조 완료하였다.
- 이후 서귀포해경은 오후 2시 26분경 송악산 인근 갯바위 주변 해상에 익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낚시객 2명은 오전부터 송악산 부남곶 인근에서 낚시하다가 종료 후 철수 준비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여 표류한 사항이었다.
- 이에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 특공대, 함정을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켜 해상에서 표류 중인 익수자 2명을 발견하고 특공대 경찰관 2명이 해상에 직접 뛰어들어 오후 2시49분경 익수자 2명을 모두 구조하였다.

**문의**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계 (064-793-2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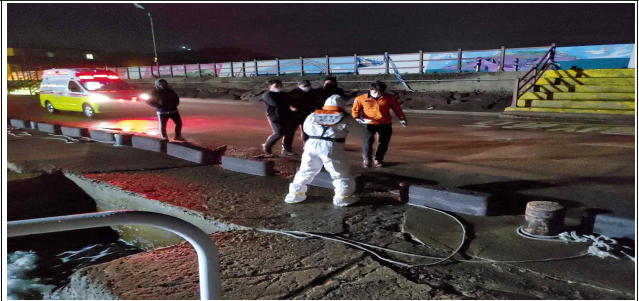


- 8일 오전 10시02분경 서귀포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선박A호(9.77톤, 낚시어선, 선원2명, 승객16명)에 타고 있던 승객과 선원을 모두 구조했다
- 이날 A호는 모슬포 인근 해상을 향해 중 원인미상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자 오전 09시 04분경 서귀포해경에 신고하였으며, 침몰을 막기 위해 가까운 해안에 좌초시켰다.
- 서귀포해경은 즉시 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및 특공대를 급파하였으며, 현장은 저수심으로 접근이 불가하여, 먼저 접근이 가능한 민간어선 B호에 경찰관이 편승하여 오전 09시33분경 승객 15명 구조하였고, 이후 오전 09:50경 추가로 선원 1명과 승객 1명을 구조 완료하였고 승선원 모두 건강상태 이상없었다.
- 이후 A호에 선장과 경찰관 2명이 어선내 잔류하여 침수량을 확인하고 배수작업을 병행하며 모슬포항으로 예인되었다.

응급환자 이송



119 구급차량에 인계



- 28일 오후 10시 20분경 제주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우도에서 환자 A씨(27세, 남)를 이송했다
- 환자 A씨는 28일 오후 5시경 복통으로 우도보건지소 방문 후 진료 결과 담석증으로 확인되어 대기하다 복통이 심해져서 당일 오후 9시 30경 긴급이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후 9시 38분경 서귀포해경에 이송요청을 하였다.
- 이날 제주 동부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불량하였으나, 서귀포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우도에서 성산항으로 환자를 이송, 오후 10시 20분경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앞서, 오전 11시 18분경 가파도에서 그라인더 공사작업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환자 B씨(남, 39세)를 운진항으로 보호자에게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높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기도 하여 위급 상황 시 도서지역 내에서 대처가 어려우니 사전점검 등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내부역량 분과

07

### 제241기 신임경찰관 관서실습교육 시행

#### 신임경찰관 실습교육 신고식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신임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7월 15일 까지 15주간 관서실습을 실시한다.
- 신임해양경찰 제241기 교육생 25명(남21, 여4)은 22일 오전 신고식을 시작으로, 단계별 교육과정 실습을 통해 해양경찰 업무를 이해하고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정립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 이번 실습은 다양한 임무를 띤 경비함정과 파출소의 근무를 통해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과정의 연계와 더불어 조직 적응력 배양 및 현장중심의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일선 해양경찰의 조직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된다.
- 한편, 제241기 신임경찰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입교하여 올해 7월 9일까지 39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바다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서귀포해양경찰과 함께 합시다!**

